

번역학의 ‘기술적 전환’(Technological Turn): AI시대의 영상번역

최수연
(충북대)

1. 서론

2016년 3월에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알파고의 바둑 대결인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가 열렸다. 사람들은 이세돌의 승리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4:1로 알파고의 승리였다. 이로 인해 학계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대비한 주제들이 급증했고, 이는 통번역 현장과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런 우려를 반영한 행사인 인간번역과 인공지능번역의 대결이 2017년 2월 21일 세종대학교에서 열렸다. 결과는 인간번역의 승리였지만, 이 결과에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전망도 이어졌다(김남규 2017. 2. 24; 오대석 2017. 2. 22; 진현진 2017. 2. 22). 신경망 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¹⁾이 공개된 지 불과 4개월 뒤

1)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학습된 통계적 모델을 기반으로 번역하는 방식

에 열린 대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번역의 품질은 더욱 좋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제1차 산업혁명 직후의 ‘러다이트’(luddite) 운동과는 사뭇 다르다.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라, AI로 대표되는 신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영역과 인간 고유의 영역을 구분하고 인간과 노동이라는 근본적인 개념까지 되짚어 보고 있다. 대중들까지 AI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인간은 그런 미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전문가들과 학계 역시 AI가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번역학 연구를 되짚어보면 기술의 역할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과 2017년에 열린 통번역 학회 주제는 AI 시대의 기술과 학문에 관한 것이었다. 이제 다양한 통번역학에서 미래 기술이 통번역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다양한 통번역 분야 중 영상번역은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분야다. “영상번역은 시각과 청각 정보를 포함하는 복합 모드의 텍스트를 전환하는 것”(O’Connell 2007: 123)이기 때문에, 영상번역의 발전은 멀티미디어 기술 발전과 그 궤적을 함께해왔다. 하지만 번역학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영상번역 연구 중 기술의 영향력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고, 대부분 영상번역교육을 위한 멀티모달 코퍼스(multi-modal corpus)에 집중되어 있다 (Baos *et al.* 2013; Bonsignori *et al.* 2012; Freddi 2013; Heiss and Soffritti 2008; Ulrych 2005; 신진원, 박기성 2015). 2017년에야 비로소 자막에서 기계번역의 활용에 대한 실험적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Bywood *et al.* 2017).

본 연구는 지금까지 기술이 국내 영상번역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AI로 대표되는 신기술이 영상번역에 가져올 변화와 이런 미래 기술 앞에서 영상번역가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고찰한다.

인 통계기반 기계번역(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과 달리 신경망 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은 신경망을 이용하여 학습할 네트워크의 구조를 최적화 프로그래밍하는 것이다(이창기 외 2015: 48-50). NMT의 단점 중 하나가 바로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데이터가 많아지고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가 복잡해질수록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이창기 외 2015: 50).

2. 번역학의 기술적 전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술적 전환'(technological turn)이란 번역학에서 발생하는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화용론적 전환이나 문화적 전환과는 다른 개념이다. 번역이란 단순히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변환이 아니다. 번역은 문화와 사회 속에서 존재하며 문화와 사회의 다양한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번역 연구에서도 사회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술적 전환'이란 번역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 중 기술의 역할과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기술적 전환'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찬 신-웨이(Chan Sin-wai)의 『번역 기술 사전』(*A Dictionary of Translation Technology*)이었다(2004: viii). 이후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 기술과 번역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컴퓨터 보조 번역(Computer Aided Translation, CAT)과 관련 툴(tool)이 번역과 번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현재 번역 연구에서 '기술적 전환'이란 번역 툴의 기능향상과 번역에서 번역가의 기술 활용 능력 즉, 툴 활용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실제 번역 현장에서 툴을 활용하는 번역량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글로벌 언어 번역, 통역, 기계번역 등의 시장 분석으로 유명한 커먼 센스 애드바이저리(Common Sense Advisory)의 'Top 100 Language Service Providers: 2016'에 따르면, 전 세계 언어 서비스 시장 규모는 해마다 5.52%씩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차세대 로컬라이제이션 센터(Centre for Next Generation Localisation)의 보고에 따르면 로컬라이제이션은 미국에서 네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2009년 235억 달러였던 언어 시장의 크기는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 전 세계 언어 산업의 규모는 400억 달러에 달하고, 2020년까지 45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GALA 2016). 이처럼 최근 번역 시장은 게임과 웹툰, 앱, 첨단 기술/통신, 제조, IT 등 분야의 매뉴얼 및 소프트웨어, 마케팅 콘텐츠 및 웹사이트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CAT 툴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구글(Google) 등으로 대표되는 신경망기계번역(NMT)의 등장으로 통번역 시장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번역 현장에서는 전통적 의미

의 번역은 그 범위가 축소되고, “IT 관련 지식과 기술”(Mackenzie 2004: 32) 등 기존에 번역에서 주변적 위치를 차지하던 요소들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과 기술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지금까지 ‘기계번역’ 또는 ‘기술과 번역’ 차원의 연구는 대부분 과학기술 분야에서 진행되었다(김선호 외 2004; 김성동 2014; 김운 외 2008; 김한경 외 2010; 나휘동, 이종혁 2013 등). 그리고 번역학 차원에서의 기술과 번역에 대해 연구한 주체 역시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다(최승권, 김영길 2009). 번역학에서 번역학자들을 중심으로 ‘기계번역’에 대해 고찰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박지영 2017; 이노신 외 2016; 이상빈 2016a, 2016b; 최영수 2012; 최효은, 이지은 2017; 함수진, 류수린 2010; 황은하 2014).

NMT 등장 이후 기계번역이 인간번역가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따라서 번역학 연구에서도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번역과 기술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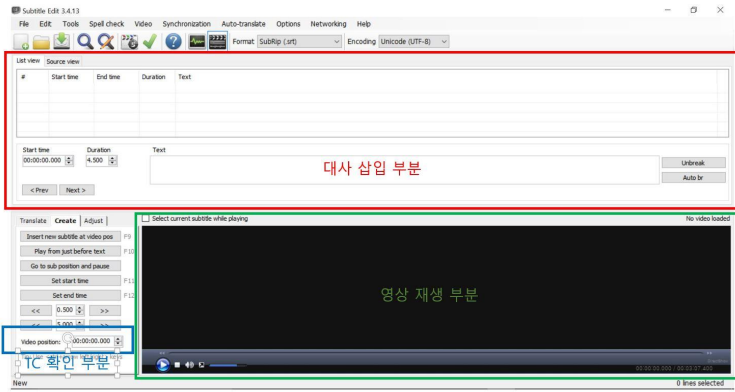
3. 영상번역과 기술

AI로 대표되는 현재의 제4차 산업혁명 이전까지 세 번의 산업혁명이 있었다. 이 중 번역 현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기술은 제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었던 디지털과 인터넷이다. 번역학자인 마이클 크로닌(Michael Cronin) 역시 “번역에서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영향력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며 심오하다”(2013: 1)고 평가했다. 국내 번역 현장의 변화를 살펴보아도 80년대 초에는 원고지에 펜으로 번역했지만, 80년대 후반에는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사회와 번역 시장을 크게 변화시킨 디지털과 인터넷은 영상번역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상번역에 영향을 준 다양한 기술 중, 디지털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두 기술이 영상번역의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본다.

3.1 디지털

영상번역에 가장 큰 변화를 준 영상 관련 기술은 영상의 디지털화였다. 영상번역 연구자인 디아즈 신타스와 앤더맨(Díaz Cintas and Anderman 2009: 3) 역시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로의 변화는 영상 산업의 새 장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영상의 디지털화는 영상 제작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눈에 띄는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Gambier 2008: 25). 특히, 디지털 기술은 영상번역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시대의 발전으로 영상번역이 강화되었는데(Ramos Pinto 2012: 337), 다유형성(multimodality)을 지닌 영상 텍스트를 번역하는 영상번역의 특성상,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형식의 등장은 영상번역의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다(Amador *et al.* 2004: 141). 영상 매체의 디지털화로 인해 영상번역에서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영상번역의 작업 환경이 종이 기반에서 전자 기반으로 바뀐 점이다(Chuang 2009: 79). 그리고 전자 기반 환경으로의 전환은 국내 영상번역의 현장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다. 바로 영상번역가의 세대 교체였다.

현재 영상번역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영상번역가들이 영상번역 현장으로 대거 유입된 시기는 1990년도 말에서 2000년도 초였다. 이 무렵은 한국 영상 시장이 아날로그 중심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된 시기였다. 영상 및 관련 기술이 디지털화되면서 영상번역의 과정 역시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아날로그 테이프의 영상에 자막을 넣기 위해서는 전문 편집실에 있는 고가의 장비와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반면, 영상이 디지털화되면서 컴퓨터로 영상을 보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TC(time code)를 맞춘 자막을 쉽게 만들고 편집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의 그림 1은 현재 사용되는 다양한 자막 제작 프로그램 중 하나다. 컴퓨터에 간단히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 화면에서 영상과 TC를 확인하며 쉽게 자막을 만들 수 있다.

그림 1 무료 자막 제작 프로그램 Subtitle Edit²⁾

이렇게 자막을 만드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클라이언트가 선호하는 영상번역가도 변했다. 경력이 긴 기존의 영상번역가보다 경력이 짧거나 전혀 없는 젊은 영상번역가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클라이언트가 젊은 영상번역가를 선호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젊은 영상번역가들은 기술 적응력이 좋기 때문이다. 영상번역 과정이 디지털화되면서 클라이언트는 변화한 방식에 빠르게 적응하는 영상번역가를 선호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각기 다른 사람이 자막 스팟팅(spottng)과 대본 번역을 했지만, 영상이 디지털화되면서 영상번역가들이 직접 스팟팅을 하고 TC를 맞춘 자막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자막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법을 빠르고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세대를 선호했다.

둘째,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시대의 클라이언트는 스팟팅 전문가와 영상번역가에게 각각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영상번역가가 스팟팅과 번역을 동시에 하면서 클라이언트는 기존 비용의 70~80%만 지불하면서 유사한 품질의 결과물을 납품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클라이언트는 높은 번역료를 받는 경력 많은 영상번역가를 고용하는 대신, 번역 실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막 제작 프로그램을 빨리 배우고 활용하는 젊은 세대를 교육해서 스팟팅과 번역을 한 사람에게 발주하기 시작했다.

2) <http://www.nikse.dk/SubtitleEdit>

1990년대 말 개국한 케이블 채널은 콘텐츠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많은 해외 영화와 드라마를 수입함으로써 해결하려 했다. 이에 따라 영상번역이 물량도 급증했다. 이 시점에 번역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위의 방식은 클라이언트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그리고 영상번역가가 스파칭과 번역을 동시에 하는 방식은 영상번역 시장 전반에 빠르게 퍼져 나갔다. 이 경향은 이제 영상번역 현장에 자리 잡아 현재 한국 영상번역 시장에서 스파칭과 번역이 분리된 경우는 영화제 등 일부에 국한된다. 물론 극장 개봉 영화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막의 납품 형태(.smi)가 아닌 TC를 정리한 다른 형태(엑셀 등)로 납품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영상번역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막 제작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영화제와 극장 개봉작 외에 케이블 채널이나 IPTV 등 현재 영상번역 시장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막번역은 자막 파일(.smi)로 납품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막 파일(.smi)이 아닌 경우에는 편집료를 제외한 번역료를 받기도 한다. 영상번역에서는 언어적 번역 실력만큼 번역 관련 프로그램을 다루는 실력도 중요해진 것이다. 이처럼 영상과 영상번역에 디지털이 적용되면서 국내 영상번역 현장에서 영상번역가의 세대 교체가 일어났다.

3.2 인터넷

전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인터넷은 영상번역의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한 인터넷은 영상번역의 행위자 간의 관계나 업무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한 영상번역의 변화 중 ‘팬자막’(fansub)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팬자막이 인터넷으로 인해 영상번역에 발생한 변화 중 직업으로서의 영상번역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팬자막은 그 탄생과 발전의 과정이 모두 인터넷에 기인한다. 영상번역 연구의 대가인 루이즈 페레즈-곤잘레스는 자신의 연구 초점을 팬자막에 맞추는 이유가 인터넷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017. 1. 14 개인 인터뷰). 인터넷을 통해 영상에 대한 접근성과 무료 자막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인터넷을 연결망으로 다수의 참여자가 팬자막에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

크가 생성되어 현재 팬자막의 형태가 구성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팬자막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팬자막을 소비하면서 팬자막은 대중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리고 팬자막의 수가 증가하고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영상번역의 시장까지 영향을 주었다. 첫째, 팬자막을 만들거나 소비하면서 영상번역을 경험한 대중은 프로 영상번역가들의 번역만 소비할 때와는 다른 기준으로 영상번역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기존 시청자들은 프로 영상번역가의 번역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인지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팬자막을 경험하는 시청자가 증가하고, 프로 영상번역가들의 번역규범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팬자막을 보면서 비교와 평가의 기준이 팬자막이 되기 시작했다. 방송을 위한 심의나 복잡한 기술적 제약은 고려하지 않은 채, 팬자막의 자유로운 시도의 장점을 프로 영상번역가의 자막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해당 영상과 팬자막을 다룬 받아 프로 영상번역가의 자막과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되자 이전보다 훨씬 비판의 강도가 세졌다. 팬자막과 프로 영상번역가의 번역 비교 시에는 프로 영상번역가의 번역 품질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그러므로 번역에서 늘 발생하는 오역이나 오류에 대한 비난도 훨씬 심해졌다. 그 결과 시청자의 지적에 의해 방영하던 프로그램을 재번역하거나 영상번역가가 교체되는 일도 발생한다.

둘째, 팬자막 고유의 특징이 영상번역 현장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기존에도 다양한 디자인의 자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었다. 그러나 실제 자막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투자한 시간과 노력 대비 그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팬자막이 점차 발달하면서 팬자막에서 검증된 다양한 특징들을 방송용 자막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팬자막을 제작하거나 소비했던 사람들이 영상번역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팬자막을 제작하고 소비하면서 팬자막의 특징에 익숙해진 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팬자막의 특징을 방송용 자막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 디지털과 인터넷이 국내 영상번역 현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과 인터넷이라는 두 기술을 중심으로 이 두 기술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부분 중 일부만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번역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로부터 크고 작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AI가 영상번역 현장에 가져올 변화는 더 크고 근본적일 것이라는 것을 쉽

게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상과 AI 기술의 만남은 영상번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

4. AI 시대의 영상번역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은 영상번역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의 과거와 현재를 변화시킨 기술이며, 이 두 기술은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21세기에 등장한 제4차 산업혁명은 더욱 근본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제1차 산업혁명 이후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했듯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을 융합해 개개인뿐 아니라 경제, 기업, 사회를 유례없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유도”(슈밥 2016: 12-13)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기술 중 영상번역에 적용 가능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컬라이제이션 번역 등 기존의 번역에 적용되던 CAT 툴이다. CAT 툴을 통해서 영상번역에 등장하는 용어를 정리하고 번역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CAT 툴은 이미 의학, 법률, 기술문서 등 다양한 분야의 용어 통일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영상번역에도 일관성의 유지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CAT 툴의 활용이 효과적이다.

주로 영화가 분석 텍스트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영상번역 연구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영상번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영화 또한 기존 영화의 후속편이나 스피노프이거나 코믹스나 웹툰 등의 만화나 소설과 같은 원작이 있는 원 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use, OSMU)인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동일한 작품이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될 때에는 작품에 등장하는 용어의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매체나 작품마다 다른 번역가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용어의 정리가 어렵다. 이런 경우 CAT 툴을 통해 용어를 정리하면 영상번역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최근 국내 영상번역 현장에서 많은 물량을 차지하는 IPTV는 많은 작품을 매우 짧은 기간에 번역하고 있다. 이런 현장은 기존의 영화나 지상파, 케

이블 채널 등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한 명의 영상번역가가 관련 작품을 꾸준히 번역하던 시스템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다수의 영상번역가가 동일한 작품을 나누어 번역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번역 작품은 일관성을 잃는다. 이런 경우에도 CAT 툴을 활용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음성 인식 기술과 비디오 판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 자막 생성 기술이다. 현재까지 영상번역 현장에 자동번역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활자 텍스트와 영상 텍스트의 오디오와 비디오를 연결시켜 TC를 적용한 자막을 생성하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음성 인식 기술과 비디오 인식 기술은 크게 발전했다. 음성 인식 기술은 자동 통역 뿐만 아니라 앱이나 가전 제품 등 다양한 상품에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산업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 중이다. 또한 비디오 인식 기술 역시 딥뷰(DeepView) 등을 통해 영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객체와 행동을 동시에 이해하는 시각지능으로 개발 중에 있다(김형철 2016: 31-34). 그러므로 이 두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 자막 생성과 자동 번역 기술이 영상번역 현장에 적용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자동 자막 생성과 번역 기술을 통해 현재 기계번역과 유사한 기본적 수준의 영상번역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자동 자막 생성 기술을 통한 영상번역의 기계번역은 영상번역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제1차 산업혁명 이후 많은 산업 분야와 직종에서 단순 반복 업무나 정밀한 육체노동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혁신이 빠르고 폭넓게 확산되는 현재에도 지구촌 곳곳에는 아직도 과거의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영상번역 현장에서도 여전히 영상과 TC가 맞는 자막을 만드는 일종의 육체노동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또한 현재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CAT 툴을 활발히 사용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번역 현장에서 이런 툴을 사용하는 영상번역가는 거의 없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합되고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AI 시대에는 영상에 맞는 자막을 제작하는 육체노동과 용어를 조사하고 정리하며 공유하는 정신 노동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AI 시대의 영상번역가

우리가 이처럼 제4차 산업혁명이나 AI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신기술의 등장으로 누리게 되는 편리함 때문이 아니다. 신기술로 인해 야기될 “노동력의 위기”(슈밥 2016: 65) 때문이다. 흔히 기술 혁신이 노동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두고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하곤 한다. 기술 발달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새로운 직업을 찾고 기술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낙관적인 의견과 기술적 실업이 대대적으로 발전하여 점차 사회적, 정치적 아마겟돈이 일어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의견이다(슈밥 2016: 67).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된다. AI 기술이 영상번역가를 대체할까? 그 대답은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기술 혁신으로 몇몇 일자리는 사라졌지만, 이 덕분에 새로운 분야의 직업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영상번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이 영상번역의 육체노동과 일부 정신노동을 대체할 수 있고, 대체해야만 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영상번역가의 절대 수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직업의 종사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의 직업에서도 동일한 미래일 것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에서 공개된 내용 중 2020년까지 전 세계 직업 중 710만 개가 사라지고 210만 개의 직업이 신기술로 인해 새로 생길 것이라는 예측은 전 세계의 언론이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어 대중에게도 익숙한 정보이다. 그러나 존재하던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은 과거에도 늘 있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더 중요한 문제는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변화로 인해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슈밥 2016: 67)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미래에 영상번역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찰한다.

영상번역이라는 제한된 분야에서 직업으로서의 영상번역가의 미래는 크게 두 가지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영상번역가들이 여전히 영상번역을 하고 있는 가까운 미래와 아직 업계에 진입하지 않은 예비 영상번역가들이 활동하게 될 상대적으로 먼 미래로 분리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가까운 미래에 영상번역가가 지향해야 할 모습은 기술 활용 전문가로서 영상번역가다. 영상번역은 도구적 능력과 같은 언어외적 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신진원, 박기성 2015: 153). 위에서 언급한 자막 자동

생성과 기본 용어의 번역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 기술의 조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기술을 국내의 영상번역 업계에서 먼저 적용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술의 효용성과 실제 그 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속도가 항상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음성과 비디오를 판독해서 자막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술은 아직 시작 단계다. 그리고 영상업계는 영상번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이 그다지 크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영상번역 시장은 영상제작 시장과 달리 이윤 창출이 높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영상번역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노력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것을 영상번역가 개인의 노력에 맡길 확률이 높다. 영상번역 현장에서 근무하는 필자의 경험상 영상번역 관련업체는 일정 수준의 필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고용할 뿐 해당 기술을 교육하지 않는다. 번역사 교육을 통해 번역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로컬 라이제이션 업계와 달리, 영상번역 업계에서는 번역 품질 향상을 위해 영상번역가를 교육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상번역 분야에서 영상번역가는 현재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관련 기술을 활용해 영상번역에 쉽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즉, 현재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영상번역가들은 앞으로 영상번역에 적용 가능한 자막 툴 기능이나 자막을 생성하고 TC를 맞추는 기술을 습득한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다른 영상번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쉽고 빠르게 좋은 품질의 번역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번역가는 점차 줄어드는 영상번역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먼 미래에 영상번역가가 지향해야 할 모습은 창조적 감수자로서 영상번역가다. 현재까지 번역에서 기계번역이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야는 문학번역이다. 물론 기계가 공모전에서 수상할 수준의 소설을 쓰거나, 시나리오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감정노동과 창작의 분야에서 기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같은 이유로 기계번역이 인간번역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번역가들의 돌파구로 꼽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창조적 감수다. 이는 영상번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영상번역에서 창조적 감수는 문학 작품의 번역과 일맥상통한다. 영상번역은

기존의 번역물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번역과 달리 매번 창조적 예술품을 번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리즈로 이어지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 영상번역에서 반복되는 요소의 번역은 기계번역을 통해 일관성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상번역은 소설이나 시, 희곡 등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작가적 문체와 표현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류 열풍을 몰고 온 한국 드라마 중 국내의 시청자들이 상징적으로 기억하는 대사들은 모두 일상적이지 않은 낯선 표현들이다. “나 너 좋아하냐?”(<상속자들>³⁾)나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태양의 후예>⁴⁾), “불허한다. 내 사람이다.”(<구르미 그린 달빛>⁵⁾),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도깨비>⁶⁾) 등의 대사가 시청자의 기억에 남는 이유는 작가 고유의 문체로 ‘낯선 문장’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상번역은 바로 이런 문장을 ‘낯설지만 매력적이게’ 번역해야 한다.

또한 영상번역에서는 작품과 영상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영상과 자막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영상은 대사만이 아니라 화면에 담긴 이미지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요소가 더 중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사 위주의 번역 역시 이런 다층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작품의 해석은 작가와 감독 그리고 배우가 작품마다 새롭게 만들어낸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성에 기반한 창조적 감수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영상번역에서 작품 특유의 재미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기계번역의 능력을 넘어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
- 3) <상속자들>은 SBS에서 2013년 10월 9일부터 2013년 12월 12일까지 방영된 드라마로 연출은 강신호와 부성철, 극본은 김은숙, 주연배우는 이민호, 박신혜 그리고 김우빈이었다.
- 4) <태양의 후예>는 KBS2에서 2016년 2월 24일부터 2016년 4월 14일까지 방영된 드라마로 연출은 이응복과 백상훈, 극본은 김은숙과 김원석, 주연배우는 송중기, 송혜교, 진구 그리고 김지원이었다.
- 5) <구르미 그린 달빛>은 KBS2에서 2016년 8월 22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방영된 드라마로 연출은 김성운과 백상훈, 극본은 김민정과 임예진, 주연배우는 박보검, 김유정, 진영, 채수빈 그리고 곽동연이었다.
- 6) <도깨비>는 tvN에서 2016년 12월 2일부터 2017년 1월 21일까지 방영된 드라마로 연출은 이응복, 극본은 김은숙, 주연배우는 공유, 이동욱, 김고은, 유인나 그리고 육성재였다.

6. 결론

지금까지 영상번역의 기술발전에 따라 영상번역가의 번역환경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보았다. 오랫동안 영상번역의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자막번역의 제약이라는 주제는 영상번역이 가지는 기술적 한계로 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번역학 연구에서 영상기술과 영상번역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상번역과 영상기술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며, 앞으로 진행될 영상번역 연구가 영상기술과의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그 연구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대로 “분열적이고 비인간화(dehumanizing)되기보다는, 인간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인간이 중심이 되게 하기”(슈밥 2016: 14) 위해서는 AI라는 기술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AI의 발달로 인해 다른 산업 분야에서 느끼는 불안과 달리, 영상번역에서 AI의 발달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몇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이 지닌 놀라운 수준의 적응력과 독창성을 기반으로 미래의 영상번역가가 갖추어야 할 능력은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기술 활용 능력과 창조적 감수 능력이다. 영상번역가는 기술 활용 전문가로서 자막 생성이나 툴 활용을 통한 용어 통일 등에 적극적으로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영상과 TC를 맞춘 자막의 자동 생성은 현재 영상번역가들이 자막을 번역하는 시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단순 육체노동에 가깝다. 그러므로 AI 기반 기술이 이런 육체 노동을 대체해주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반가워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CAT 툴을 활용해 이름 등 고유명사의 표기나 전문 용어 등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점도 기술이 영상번역가의 정신노동을 대체해서 그 직업을 빼앗을 거라는 관점이 아닌, 번역 품질의 향상을 도울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미래의 영상번역가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수용하면서, 영상번역가로서 미래에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미래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창조적 감수자로서 작품과 영상에 대한 해석과 작가적 표현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앞으로 번역 현장에서 인간 번역

가의 역할은 포스트 에디팅(post-editing)이나 정서적 활동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은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상번역에서 필요한 감수도 기계가 읽어내지 못하는 감정적 측면을 이해하고 이를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표현을 찾아내는 것이 될 것이다.

사실 “제4차 산업혁명은 선형적 속도가 아닌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전개 중”(슈밥 2016: 12)이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에서 영상번역을 비롯해 다양한 번역 현장과 번역학이 어떻게 변화할 지는 사실상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연구 역시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단지 속도를 쉽게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영상번역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되짚어보기 위한 것이다.

영상 텍스트가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은 빠르게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영상번역의 역할에 대한 고찰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길지 않은 번역학의 역사에 비해 영상번역의 연구 역사는 더욱 짧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의 영상번역 연구에서도 아직 연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특히, 영상번역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국내에는 번역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시기의 영상번역 연구는 그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도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이에 따라 관련 연구의 수도 빠르게 증가할 영상번역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공백을 채워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영상과 영상번역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영향력에 비해 영상번역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영상번역의 연구 중 빠진 공백의 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영상번역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영상번역에 영향을 준 수많은 요소와 기술 중 디지털과 인터넷이라는 두 기술의 측면에서만 살펴보고, 이 두 기술과 관련된 영상번역 현장의 변화 중에서도 일부만을 다루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제3차 산업혁명에서 시작된 디지털과 인터넷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도 핵심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영상번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요소로 판단하여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영상번역과 디지털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기술과의 관계에서는 국내

영상번역 현장의 변화를 간단히 정리한 것에 그치고, 영상번역과 미래의 기술인 AI와의 관계에서는 번역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포스트 에디팅이나 인간의 정서적 측면이라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사실을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마다 국내외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영상번역 관련 연구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영상번역 연구는 ST와 TT의 비교를 통한 번역 전략 분석과 오류 지적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영상텍스트에서 번역 전략과 오류를 정리하는 것도 의미 있다. 그러나 영상번역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주제를 연구하는 현 시점에서 그 신선하고 반짝이는 연구들을 이어주고 지탱해줄 관련 연구들도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과 인터넷 이외에도 영상번역에 영향을 주는 기술은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다양한 기술의 측면에서 영상번역을 바라본다면 좀 더 번역 현장을 잘 반영한 학술적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영상번역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고찰이 앞으로 진행될 영상번역의 연구를 위한 작은 지지대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김선호, 윤준태, 임해창 (2004) 「통계적 기계 번역 기술 연구 동향」, 『정보처리학회지』 11(2): 76-87.
- 김성동 (2014) 「규칙 기반 영한 기계번역 시스템의 영어 구문 규칙 관리 시스템」,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20(7): 398-407.
- 김운 외 (2008) 「자동번역 기술 동향 및 응용 사례」, 『전자통신동향분석』 23(1): 89-98.
- 김한경, 나휘동, 이금희, 이종혁 (2010) 「문장구조 유사도와 단어 유사도를 이용한 클러스터링 기반의 통계기계번역」,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37(4): 297-304.
- 김형철 (2016) 「한국의 인공지능 개발 전략 및 방향」, 『한국형 인공지능 음성 인식 및 번역 시스템 개발 발표집』: 23-43.

- 나휘동, 이종혁 (2013) 「통계기반 기계번역을 위한 어순 조정」,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40(11): 657-662.
- 박지영 (2017) 「언어 기술 혁신과 통번역 산업의 미래 - 20대 글로벌 LSP의 통번역 서비스 분석을 바탕으로」, 『통번역학연구』 21(1): 137-168.
- 박찬순 (2005) 『그 때 번역이 내게로 왔다: 영상번역, 소통의 미학』, 파주: 도서출판 한울.
- 신진원, 박기성 (2015) 「영상번역교육을 위한 코퍼스 설계」, 『번역학연구』 16(3): 148-172.
- 이노신 외 (2016) 「통번역의 미래지평: 인공지능과 소통형 융합통번역 연구」, 『번역학연구』 17(2): 65-89.
- 이상빈 (2016a) 「번역기계, 팬번역가, 로컬라이저의 네트워크」, 『번역학연구』 17(3): 117-137.
- _____ (2016b) 「트랜스트리에이션, 기계번역, 번역교육의 미래」, 『통역과 번역』 18(2): 129-152.
- 이지민 (2015) 「팬자막과 전통 영상번역은 과연 다른가? - 다중기호성을 반영한 영상번역 정의와 자막 형태, 자수 제한, 이국화 전략 탐구」, 『번역학연구』 16(2): 165-186.
- 이창기, 김준석, 이형규, 이재송 (2015) 「Neural Machine Translation 기반의 영-일본어 자동번역」, 『정보과학회지』 33(10): 48-52.
- 최승권, 김영길 (2009) 「영한 번역 메모리의 구조화 연구」, 『번역학연구』 10(3): 193-216.
- 최영수 (2012) 「기계번역에 나타난 한일번역 양상: 부정표현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4): 211-233.
- 최효은, 이지은 (2017) 「특히 기계번역 결과물의 평가 - KIPRIS의 무료 한영 기계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9(1): 139-178.
- 클라우드 슈밤 (2016) 『클라우드 슈밤의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옮김, 서울: 새로운현재.
- 함수진, 류수린 (2010) 「기술문서의 한일기계번역 문제에 대한 통제언어 연구: ‘-되다’ 구문의 기계번역수월성 제고를 위한 통제규칙」, 『번역학연구』 11(4): 191-238.

- 황은아 (2014) 「언어학적 지식에 기반한 한중 뉴스 표제의 기계번역」, 『번역학 연구』 15(4): 333-362.
- Amador, Miquel, Carles Dorado and Pilar Orero (2004) 'e-AVT: A Perfect Match', in Pilar Orero (ed) *Topics in Audiovisual Translation*, Benjamins Translation Library 56, Amsterdam: John Benjamin, 141-53.
- Ba os, Rocío, Silvia Bruti and Serenella Zanotti (2013) 'Corpus Linguistics and Audiovisual Translation: in Search of an Integrated Approach', *Perspectives* 21(4): 483-490.
- Bonsignori, Veronica, Silvia Bruti and Silvia Masi (2012) 'Exploring Greetings and Leave-takings in Original and Dubbed Language' in Aline Remael, Pilar Orero and Mary Carroll (eds), *Audiovisual Translation and Media Accessibility at Crossroads*, Amsterdam & New York: Rodopi, 357-379.
- Bywood, Lindsay, Panayota Georgakopoulou and Thierry Etchegoyhen (2017) 'Embracing the Threat: Machine Translation as a Solution for Subtitling', *Perspectives* 25: 1-17.
- Chan, Sin-Wai (2004) *A Dictionary of Translation Technology*, Hong Kong: The Chinese UP.
- Chuang, Ying-ting (2009) 'Subtitling as a Multi-modal Translation', in Kenneth K. L. Au and Gilbert C. F. Fong (eds) *Dubbing and Subtitling in a World Context*, Hong Kong: The Chinese UP, 79-90.
- Cronin, Michael (2013) *Translation in the Digital Age*, New York: Routledge.
- Díaz Cintas, Jorge and Aline Remael (2007) *Audiovisual Translation: Subtitling*. Manchester: St. Jerome.
- Díaz Cintas, Jorge and Gunilla Anderman (eds) (2009) *Audiovisual Translation: Language Transfer on Screen*, Basingstoke &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Freddi, Maria (2013) 'Constructing a Corpus of Translated Films: a Corpus View of Dubbing', *Perspectives* 21(4): 491-503.
- Gambier, Yves (2008) 'Recent Developments and Challenges in Audiovisual Translation Research', in Delia Chiaro, Christine Heiss and Chiara

- Bucaria (eds) *Between Text and Image*, Benjamins Translation Library 78, Amsterdam: John Benjamin, 11-36.
- Heiss, Christine and Marcello Soffritti (2008) 'Forlì 1 The Forlì Corpus of Screen Translation. Exploring Micro Structures', in Delia Chiaro, Christine Heiss and Chiara Bucaria (eds) *Between Text and Image: Updating Research in Screen Transl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51-62.
- Mackenzie, Rosemary (2004) 'The Competencies Required by the Translator's Role as a Professional', in Kristen Malmkjaer (ed) *Translation in Undergraduate Degree Programmes*, 31-38.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O'Connell, Eithne (2007) 'Screen Translation', in Piotr Kuhiwezak and Karin Littau (eds) *A Companion in Translation Studies*, Clevedon, Buffalo & Toronto: Multilingual Matters, 120-133.
- Ramos Pinto, Sara (2012) 'Audiovisual Translation in Portugal: The Story so Far', *Anglo Saxonica* III(3): 336-64.
- Ulrych, Margherita (2005) 'Training Translators: Programmes, Curricula, Practices', in Martha Tennent (ed) *Training for the New Millennium: Pedagogies for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3-33.
- Zhang, Chengzhi and Hui Cai (2015) 'On Technological Turn of Translation Studies: Evidences and Influences', *Journal of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6(2): 429-34.

<디지털 자료>

- 김남규 (2017. 2. 24) 「인간 대 인공지능 번역대결 공정성 논란」, 『IT조선』, 2017년 4월 3일 검색.
- 오대석 (2017. 2. 22) 「인공지능 대 인간 번역대결 공정했나?」, 『전자신문』, 2017년 4월 3일 검색.
- 진현진 (2017. 2. 22) 「인간vs기계 '번역대결', 공정성 논란 불거져」, 『디지털타임스』, 2017년 4월 3일 검색.

임스』, 2017년 4월 3일 검색.

최평천 (2017. 2. 10) 「인간vsAI 또 붙는다…번역사-번역기, 누가 더 정확할까」,
『연합뉴스』, 2017년 4월 3일 검색.

Common Sense Advisory (2016) ‘Top 100 Language Service Providers: 2016’,
Available at www.common senseadvisory.com/Marketing/2016-largest-LSPs.aspx.

GALA (2016) ‘Translation and Localization Industry Facts and Data’ Available
at www.gala-global.org/industry/industry-facts-and-data.

<개인 인터뷰>

윤혜진 (2015. 10. 16 / 2016. 11. 14)

Perez-Gonzalez, Luis (2017. 1. 14)

[Abstract]

**The Technological Turn in Translation Studies:
The Impact of AI on Audiovisual Translation**

Choi, Suye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direction of audiovisual translation in the AI period by looking at how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audiovisual translation has changed the environment of audiovisual translation market and audiovisual translators.

Digital and Internet,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ave greatly changed the audiovisual translation environment in Korea. As video and subtitle production programs changed from analog to digital, generation of audiovisual translators was replac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e accessibility of video and subtitle production programs has increased, and the networks between many participants have become active, so that fansubs have appeared in the audiovisual translation.

And with the advent of AI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can expect another big change in audiovisual translation. By applying CAT tools to audiovisual translation, it becomes possible to investigate, organize, and unify terminology. And automatic subtitle creation based on voice recognition technology and video reading technology. The technologies that are currently being developed and will be developed in the future can replace some of the physical and mental labor of audiovisual translation.

Future video translators, in which technology will replace physical labor and some mental labor in audiovisual translation, must have a capacity that technology can not replace. Audiovisual translators in the future should be technology experts and creative post-editors.

▶ Key Words: audiovisual translation, technological turn, AI, digital, internet

최수연

충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ley9900@hanmail.net

관심분야: 영상번역, 멀티미디어번역, 사회학적 연구, 번역과정

논문투고일: 2017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9일

게재확정일: 2017년 6월 12일